



김원섭의 변신, 그에게 무슨일이..

눈물 겨운 병치레 딛고 톱타자 도전... 시즌 초반 맹활약 타격폼 바꾼뒤 13경기 연속 打·打·打... KIA 승리 이끌어

김원섭의 변신을 주목하라. KIA 타이거즈 외야수 김원섭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 4월8일 SK 와이번스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첫 안타를 신고한 이후 김원섭은 무서운 기세로 안타를 만들어 내고 있다.

김원섭은 22일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4차전에서 선두타자 안타를 기록하며 1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19일 홈런 하나가 부족해 사이클링 히트를 놓쳤던 김원섭은 21일 두산 베어스와의 홈 경기에서 3회말 1사1루에서 상대 투수 김상현의 슬라이더를 받아 우측 팔대 바로 앞쪽으로 넘어가는 시즌 2호 홈런을 터트렸다.

2001년 입단 이후 자신의 통산 5호 홈런이었다. 지난 전지훈련에서 영등이 통증으로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 대다 시범경기 때는 단상간염 때문에 병원 신세까지 졌던 터라 초반 김원섭의 활약은 더 값있다.

올 시즌을 앞두고 김원섭은 타격폼을 수정했다. 상체가 앞으로 쏠려있던 지난해에 비해 상체를 고정 한 채 타격 임팩트 때 힘을 더 싣고 있다.

타격폼을 수정하면서 황병일 타격 코치와 김원섭은 시즌 전 '훈련 10개'를 놓고 내기를 했다. 황 코치가 '훈련 10개 이상'에 한 표를 던진 반면 김원섭 본인은 아직 장타 능력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황병일 코치는 "김원섭이 보기가 달리고 파워가 있는 선수로 손목 힘이 좋아 충분히 홈런을 때릴 수 있다"며 "올 시즌 10개 이상의 홈런을

때려낼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용규의 부상 속에 테이블 세터로 나서 중견수를 맡고 있는 김원섭은 출루율과 득점에 욕심을 내고 있다. 테이블 세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팀의 승리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게 김원섭의 생각이다. 김원섭은 지난해 105개의 안타를 때리며, 0.305의 타율과 30타점 55득점 21도루를 기록했다. 출루율은 0.398였다. 어느 선수와 비교해 손색없는 성적이었지만 김원섭에게 쏟아지는 시선은 적었다. 하지만 김원섭은 그런 점에 개의치 않는다. 목욕하러 경기장에 나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김원섭의 컨디션 관리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연습에 집중하고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에 나서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족의 힘이 김원섭을 이끈다. 만성간염을 앓고 있는 김원섭은 아내의 열렬한 응원과 내조 속에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홈경기가 있는 날이면 아내가 김원섭의 운전기사 역할까지 담당한다. 올 9월에는 둘째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라 김원섭의 올 시즌 각오는 남다르다.

이용규·재중범의 부상이 겹친 외야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김원섭의 '조용한 활약'은 계속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용대의 화순 배드민턴 최강

전남도민체전 이틀째



배드민턴 영웅 이용대를 배출한 화순군이 역시 배드민턴 최강임을 과시했다. 화순군은 22일 영광 법성포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48회 전남도민체전 이틀째 경기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해남군을 2-0으로 가볍게 꺾고 결승에 오른 화순군은 순천을 2-0으로 누르고 올라온 목포시를 맞아 시종일관 우세한 경기를 펼친 끝에 2-0으로 제압하며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또 사이클 경기에서는 나주시가 1위를 기록했다.

나주시는 이날 여자부 금메달 나야름(1분42초20)과 남자부 은메달 최현수(1분59초23)의 선전에 힘입어 2위 강진군·3위 순천시를 제치고 우승, 사이클 무적임을 과시했다.

영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육상경기에서는 진도군 대표 3명이 선전을 펼쳤다. 먼저 남자 투포환 김용희가 13m 05를 기록, 이정권(목포·12m73)·김동(여수·12m 05)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여자부 경기에서는 5000m에서 정세란이 18분55초84로, 멀리뛰기에서 최영림이 5m40을 각각 기록해 고향 진도에 금메달을 선사했다.

이밖에도 200m 경기에서는 이정대(목포·22초56)와 이미영(해남·25초80)이 남녀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지난 21일 열린 제48회 전남도민체전 개회식에서 성화 최종주자 김승일(맨 오른쪽) 선수로 부터 성화를 건네받고 있는 조영기 전남태권도협회장·신언용 재경 영광군향우회장·신은진 영광중앙초 총학생회장(왼쪽부터).

도민체전 최종점화자 신언용 재경 영광향우회장

60회 생일 케익대신 성화

"잘사는 영광년이 되길 바라며 불을 지웠습니다. 아울러 전남도와 우리나라의 발전도 함께 빌었죠"

지난 21일 영광서 열린 제48회 전라남도민체전대회 개회식에서 성화 최종 점화자 3명 중 1명인 신언용(60) 재경영광군향우회장이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이번 도민체전의 특색 중 하나가 바로 성화 최종 점화자를 3명 세운 것. 개최된 영광군의 미래·현재·과거를 나타내는 삼색의 뜻을 담은 것이다.

최종 점화자는 바로 신 회장을 포함해 조영기(71) 전남태권도협회장과 신은진(12·영광중앙초)양이었다.

특히 신 회장에게는 개회식 날이 개인적으로는 뜻깊은 날이었다. 음력으로 3월26일이었던 이날이 공교롭게도 신 회장의 60번째 생일이었던 것이다. 신 회장은 "우연이지만 이렇게 뜻깊은

날이 내 생일과 겹치니 기분 좋네요. 아무튼 고향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며 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검사 출신인 신 회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1999년)·서울지검 동부지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서울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07년 재경향우회장을 맡은 신 회장은 재경향우회에서 8개의 축구팀을 구성, 매월 두번씩 만나 1년 동안 리그전을 개최하면서 향우회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해오고 있다.

신 회장은 이에 대해 "사실 대부분 향우회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데 축구대회를 갖다보니 젊은층들의 참여가 높아졌다"면서 "리그를 통해 영광향우회가 더욱 활성화 되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22일 제주도 서귀포시 핀크스 골프장(파72·6천721m)에서 열린 유럽골프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 프로암 경기에서 에니 엘스(남아공)가 6번홀에서 어프로치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깊은 러프와 싸움 이겨야 우승"

엘스, 발렌타인 챔피언십 전망

"내가 경기했던 어떤 곳보다도 러프가 까다롭다" 23일 개막하는 유럽프로골프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위해 제주를 찾은 '황태자' 에니 엘스(남아공)는 이번 대회가 깊은 러프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번째 한국 방문이지만 제주를 처음이라는 엘스는 22일 제주 서귀포시 핀크스 골프장(파72·6천721m)에서 프로암 대회를 끝낸 뒤 기자회견에서 "터샷을 잘 치지 못하면 러프가 힘들게 느껴질 것 같다. 내가 경기했던 어떤 곳보다도 러프가 까다로운데 특히 바람이 불고 있어 더욱 어렵다"고 소감을 밝혔다.

엘스는 "자년에 우승 스코어 24언더파가 나왔는데 올해는 그런 스코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핀크스 골프장은 페어웨이 폭을 작년과 비슷한 20~25m로 유지했지만 러프를 최대 120mm까지 길러 놓았다. 특히 그린 주변의 러프도 100mm가 넘어 정확한 샷을 구사하지 않으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골프 수준을 높이 평가한 엘스는 "주니어 프로그램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골프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한국인의 비범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초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대회 마스터스에서 컷 탈락한 아쉬움을 나타낸 엘스는 "아직 세 개의 메이저 대회가 남아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연합뉴스

찬호, 첫승 도전

26일 플로리다전 출격

박찬호(36·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상승세인 플로리다 말린스를 상대로 시즌 첫 승리에 세 번째 도전장을 냈다. 미국프로야구 필라델피아 구단은 22일(한국시간) 박찬호가 26일 오전 8시10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돌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말린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3일과 20일 각각 콜로라도 로키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상대로 선발 등판했으나 3과3분의이닝 5실점, 5이닝 4실점하고 타선 덕분에 패전을 면했던 박찬호는 이번 등판에서 첫 승을 올려 찰리 매뉴얼 감독의 신뢰를 확실히 되찾겠다는 각오다.

매뉴얼 감독은 당분간 "박찬호를 꾸준히 선발로 내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5선발 경쟁자였던 J.A. 험이 볼펜에서 평균자책점 2.35로 호투 중이어서 박찬호가 선발 자리를 지키려면 이번 등판에서는 변화구 제어력을 키워 이진 등판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올 시즌 승패없이 평균자책점 8.68을 기록 중인 박찬호는 지난해까지 돌핀스타디움에 통산 5차례 선발 등판해 1승1패, 평균자책점 5.52를 남겼다.

시즌 초반 7연승을 달리며 돌풍을 일으킨 플로리다는 이날까지 11승3패로 박찬호가 속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선두에 나선 팀으로 공수 균형이 돋보인다. 특히 전날까지 팀 방어율 3.63으로 리그 3위를 달려 6.87로 리그 최하위인 필라델피아보다 막강한 방패를 자랑한다.

프로기사 이세돌 "한국리그 불참"

랭킹 1위 이세돌 9단이 국내 최대기전인 한국리그 불참을 전격 선언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기사 이세돌은 'KB국민은행 2009한국바둑리그' 예선 출전 신청 마감일인 지난 20일 한국기원 사무국에 전화를 걸어 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회 흥행에 큰 차질이 우려되자 한국기원은 예선추첨식을 23일로 하루 연기하며 이세돌을 설득했으나 이세돌은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세돌이 빠지면서 랭킹 25위까지 주는 본선 시드는 박승화 3번에게 돌아갔다.

이세돌은 불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않았으나 대회 전부터 동료 프로기사들에게 "한국리그 팀수와 대회 규모가 줄어들다 불참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대회 위상이 위축된 데 따른 불만 때문으로 보인다.

8개 팀이 겨루던 한국리그는 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월드메르디앙, 신성건설, 울산다이어, 제일화재등 4개팀이 이탈하고 신안태권전일영과 바투, 하이트진로 등이 새로 참여하면서 7개 팀으로 꾸러진다. /연합뉴스

